

ノ・ギフン

2010-12 韓国中央大学 写真学科 修士課程終了
2003-10 韓国中央大学 写真学科 学士課程卒業

個展

2016 「1号線」KT & G サンサンマダン (ソウル, 韓国)
2015 「ミザンセーヌ」Space-nowhere (ソウル, 韓国)

グループ展

2017 「春の祭典」浦項美術館、(浦項, 韓国)
2016 「写真の未来色2016」コウン写真美術館 (釜山, 韓国)
2015 ソウルルナフォトフェスティバル「遊牧と定住の間で」ポアンアートスペース (ソウル, 韓国)
2014 市道文化財団創作空間統合フェスティバル「創作の明日! 作品の始まり」市民聴ギャラリー (ソウル, 韓国)
2013 「オフアンドフリー国際拡張映画芸術祭」、ソウル市立美術館 (ソウル, 韓国)

노기훈

2010-12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 순수사진전공 졸업
2003-10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16 1호선, KT&G 상상마당 홍대, 서울
2015 미장센, 공간 지금여기, 서울

주요 단체전

2017 봄의 제전,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6 2016 사진미래색,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5 서울루나포토 페스티벌 <유목과 정주 사이에서>, 보안여관, 서울
2014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창작의 내;일! 작품의 시작>, 시민청 갤러리, 서울
2013 오프엔프리 국제확장영화예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Noh Gihun

2010-12 M.F.A. in Photography,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3-10 B.F.A. in Photography,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

2016 <Line 1>, KT & G Sangsangmadang, Seoul, Korea
2015 < Mise en Scène >, Space-nowher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7 <The Rite of Spring>,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2016 <New Force of Photography 2016>,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2015 Seoul Lunar Photo 2015 <Anchoring Between Wander & Settlement>, Artspace Boan, Seoul, Korea
2014 <Art Residency Festival>, Seoul City Hall Gallery, Seoul, Korea
2013 <Off and Free International Expanded Cinema and Art Festival>, Seoul Museum of Arts, Seoul, Korea

BankART 1929

〒231-0002 横浜市中区海岸通3-9

3-9 Kaigan-dori, Naka-ku, Yokohama, Japan 231-0002

TEL: 045-663-2812 E-mail: info@bankart1929.com

Suppor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cheon Art Platform



「Line 1」, Installation View, space Sinpoto 15221, 2016



Sindorim-Yeongdeungpo Dorimcheon, 2015. From the series 「Line 1」



Dongincheon-Down Chamijeon, 2014. From the series 「Lin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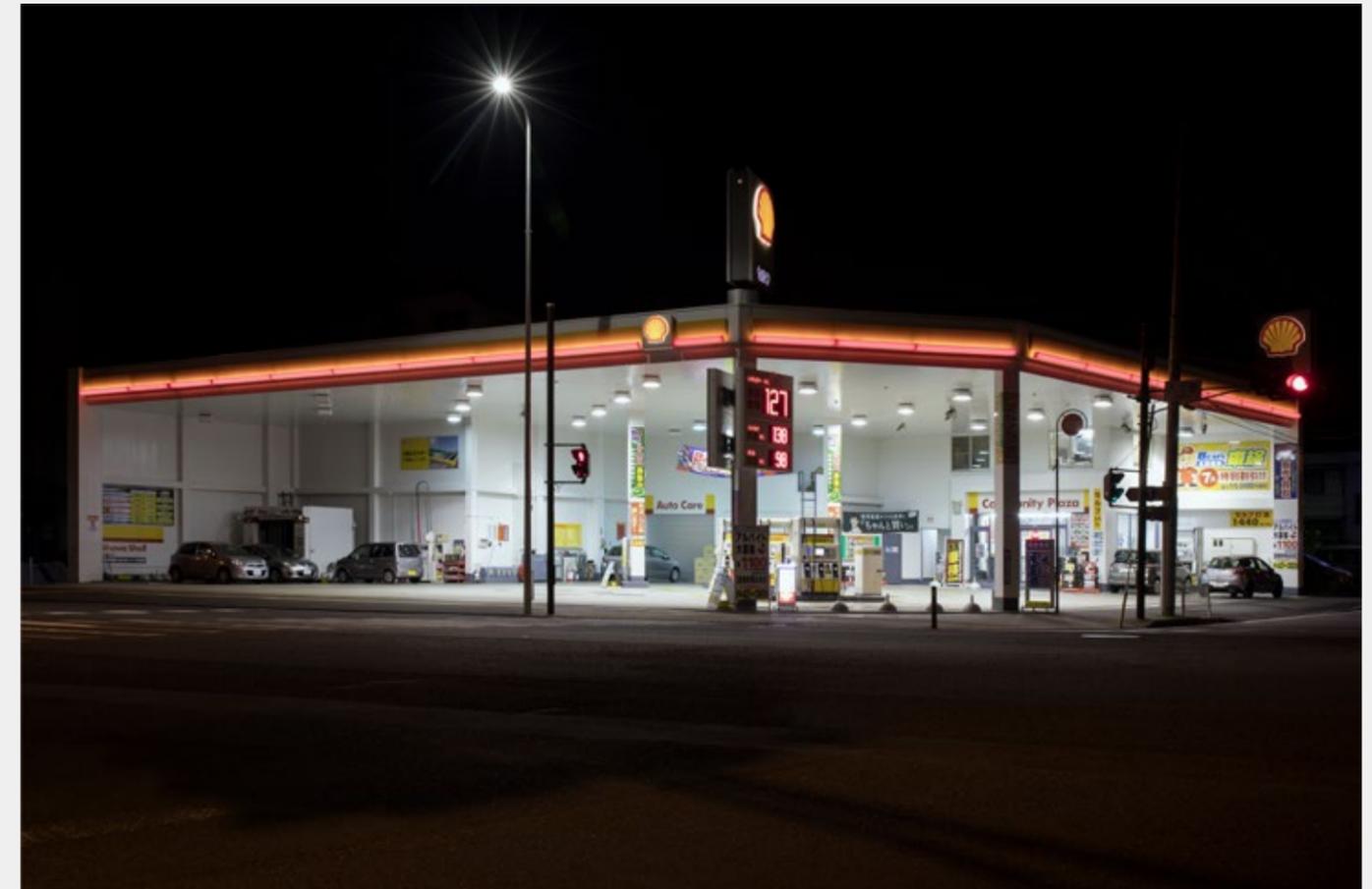
Baegun-Bupyeong Couple, 2016. From the series 「Line 1」

続・朝鮮通信使2017 / Seque : Korean Envoys 2017

横浜・韓国アーティスト交流プログラム 2017

The Artist Exchange Program YOKOHAMA & KOREA 2017

ノ・ギフン
盧基勳
노기훈
Noh Gihun



Moon and Light #7873, 74 × 111cm, Pigment Print, 2017

Noh Gihun 「Moon and Light」

2018.1.26Fri. – 2.4Sun. 11:00-19:00 BankART Studio NYK 1F/Mini Gallery



Moon and Light #8462, 74 × 111cm, Pigment Print, 2017



Moon and Light #8118, 74 × 111cm, Pigment Print, 2017



Eclipse #1-2, 131 × 105cm, Digital C-Print, 2017

Eclipse #1-1-2, 53 × 35cm, Digital C-Print, 2017

続・朝鮮通信使2017 / Seque : Korean Envoys 2017

横浜・韓国アーティスト交流プログラム2017

The Artist Exchange Program YOKOHAMA & KOREA2017

ノ・ギフン / Noh Gihun 「Moon and Light」

2018年1月26日[金]～2月4日[日] 11:00-19:00

BankART Studio NYK 1F/Mini Gallery

月と光

「月と光」は横浜から東京まで歩きながら撮った写真である。神保町の古本屋で買った19世紀の地図を広げ、地理上の軸を日本初の鉄道路線である新橋駅—桜木町駅(旧横浜駅)間と設定。桜木町駅から出る最終電車に乗って中間地点の駅で降り、徒歩で東京に向かって進みながら写真を撮り、始発電車で桜木町駅に戻る。この旅程が一日の流れである。

日本の秋の抜けるような青空は、微塵のくもりもなく星を透過する。街路に整然と並ぶ建物群は独特の質感を携え、夜になると月の明かりと人工の光を反射する。

日中は駅から怒濤のようにあふれる人波も、夜には自らの部屋に戻り灯をともす。終電に乗り、自分が歩きだす駅に到着する頃には、家から漏れていたその灯も消えはじめる。コンビニの照明と夜の世界のいくつかの光だ

けが街の中でゆらゆらし、人の気配を感じさせてくれる。夜の世界の人たちは自分の乗り物で、光を放ちながら移動する。静かな日本の夜に、いっそう際立つ夜通し走る未知の光の世界。月明かりと混ざった人工光は寂寞を感じるほど美しい日本の都市の風景に光跡を残す。

横浜に戻る頃には、朝早く出かける人々が疲れた顔で始発電車に乗り込んでいく。夜が明け、朝になると、昨夜目にしたのは幻になっていた。電車から、明るい街へと早足でいく人々は、都市に吸い込まれるようにビルディングに入っていく。

日の短い秋の日本の夕空は変わりなく、ぼおっと紅色から蒼色に変わり、すぐ暗くなる。そして人がつくり出した光と月明りだけが存在する幻想の時間がまたはじまる。

ノ・ギフン

달과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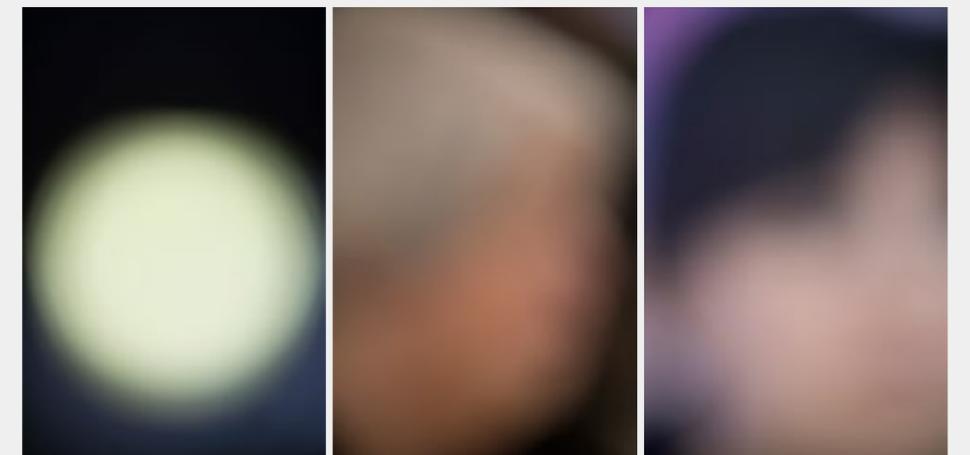
〈달과 빛〉은 일본의 요코하마横浜에서 도쿄東京까지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이다. 도쿄의 진보초神保町에 있는 고서점에서 구입한 19세기 지도를 펼치고 지리상 축을 일본 최초의 철도노선인 요코하마 사쿠라기초역桜木町駅から 도쿄 신바시역新橋駅까지로 설정했고, 시간적 배경은 사쿠라기초역에서 운행하는 그날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중간역에 내린 뒤 도쿄를 향해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고 첫차를 타고 사쿠라기초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

일본의 깨끗한 시계가 주는 청명한 하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별들을 여과없이 투과했다. 잘 정돈된 거리의 표면은 구획을 나눠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질감을 형성하면서 밤이 되면 달빛과 인공의 빛을 반사했다. 낮이면 쏟아지듯 역사를 뒤흔쳐나오던 빠른 걸음의 인파도 밤이 되면 그들만의 방에 들어가 빛을 발했다. 막차를 타고 시작점에 도착한 시간이면 집 안에서 새어나오던 각자의 조명은 꺼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영업점에서 비추는 조명과 밤이 익숙한 몇몇이 가진 불빛만이 거리에 흔들리면서 누군가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려왔다. 밤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탈 것에 의지해 빛을 발하며 이동했다.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밤에 유일하게 화려한 것은 조용한 밤을 뚫고 달리는 알 수 없는 빛의 세계였다. 달과 섞인 인공의 빛은 적막하도록 깔끔

한 일본의 도시와 섞이며 인간이 없는 도시 풍경에 궤적을 남긴다.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시간이면 이르게 나선 사람들이 부은 눈을 꿈빕이며 첫차에 몸을 실었다. 동이 트고 새벽이 아침으로 바뀌자 밤에 본 것들은 환영이 되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열차에서 밝은 거리로 빠져나와 도시의 일부가 되기 위해 빌딩으로 들어갔다. 해가 빨리 지는 일본의 맑은 하늘은 어김없이 묘연한 분홍과 푸름으로 소멸되었다가 다시 까맣게 감싸게진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빛과 달빛만이 존재하는 환상의 시간이 다가왔다.

노 기훈



Surface #1-1, 131 × 87cm, Pigment Print, 2017

Surface #2-1, 131 × 87cm, Pigment Print, 2017

Surface #2-2, 131 × 87cm, Pigment Print, 2017

